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고, 손해이지 조금 크게 보면 양보가 결코 양보가 아니며, 양보했다고 했지만 그것은 자신을 현실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1등만이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스님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산다면 금방 도태될 수 있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통찰이 되면 저절로 자비가 되고 연민이 됩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하면 그것이 곧바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남을 위하면 다른 이란 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까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남을 위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가 남편을 배려하는 것이고, 친구를 위하면 나와 친구가 잘 되요.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맞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틀리고 나쁜 것이라면 그것은 선(善)이라고 할 수 없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남의 잘못이 아니라 그 속에는 나의 잘못도 포함되어 있다. 내 자신이 이 세상을 문제거리가 있는 세상으로 만들면서 살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도 수행이다. 모든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를 지탱하는 나와 너 가운데 한 사람이 잘못되면 우리는 함께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대효 스님은 단식을 통한 참선을 지도하기에 더욱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낸다. 단식을 하면 현대인들의 고민거리인 살도 빠지고 몸의 독소도 뱉어내고 여러 가지로 이로운 점이 많으며 사교체계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스님의 철학이다. 단식이 어렵지 않냐고 물었더니 "배가 고프다는 것도 마음이 만들어 낸 허상입니다. 단식이 힘들 것 같아도 집중단식수행을 시작하면 배고픔은 반나절이면 잊게 됩니다"라고 한다.

"오직 먹고 오직 살기 위해서 행군을 멈출 수 있는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식은 자신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인생의 큰 도전입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기에 몸과 마음은 상호간에 영향을 끼쳐요. 마음의 상태를 몸을 통해 알 수 있고, 몸의 상태를 통해 마음의 세계를 가늠할 수 있어요. 단식을 통해서 잊고 살았던 자신의 무한한 세계를 접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힘들다고 하는데 대효 스님의 진단에 의하면 이것 또한 한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가는 길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삶의 목표가 없는 것은 방향이 없어요. 자신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떤 목표는 명문대 입학 하는 것, 그 다음은 좋은 직장, 그 다음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출세하는 것 이렇게 삶의 목표가 욕망에 따라 계속 바뀌다가 말년에는 실버타운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목표만 설정되면 아침 먹고 설거지 하는 것 보다 더 쉽지만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욕망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삶의 길에는 술한 고비가 있기 마련이며, 인생에 있어서 고비가 없다면 우리 자신의 본래모습으로 되돌아갈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라고 했다. "어려운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항상 잘된다면 오만에 빠져 세상을 알잡아 보게 되고 그것이 곤란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자기 안에 존재하는 의지치를 보지 못하고 외부에서 찾는 데 이것은 태양빛은 부정하면서 사슴과 같은 빛을 쫓는 것과 같아요."

대효 스님은 지금 시대의 상황을 보면 불교만이 이를 답을 수 있고 감당해 낼 수 있다고 한다.

"과거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주인이 종을 지배하는 수직관계의 지배체제를 갖춘 시대였지만 지금은 지배론적 도덕관이 해체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개인의 가치와 개성이 존중되는 시대인데 불교만큼 여기에 맞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선지식의 가르침은 마치 여름날의 실상과 같아서 모든 짐승의 답답한 갈증을 풀어주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연못에 내리쬐는 햇빛과 같아서 모든 이의 마음에 연꽃을 피우게 한다고 했다. 대효 스님의 말씀과 신념이 그러하다.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21> 전강 대선사

전강 큰스님은 고봉 스님 보다 여섯 살 손아래 되는 분이지만, 수도의 법력과 득도의 경지가 남 달리 뛰어나 덕숭문중에서도 특별히 우대하는 선지식이였다.

첫째는 재물과 명예를 탐하지 않고, 둘째는 깨달음이 철저하여 결집이 없기 때문이다.

인친 양조장 주인 이장복이 6·25사변 때 부인을 잃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슬로 세상을 살았다. 친구들과 함께 화전놀이로 소사에 갔다가 산중에 도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네 사람이 올라갔다.

한 노인이 배장방이 바람으로 티머리를 질끈 매고 장작을 패고 있었다.

"이 곳에 도인이 있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도인은 길가는 사람이 도인인데, 여기는 길이 다 막혔어요."

"한 말씀만 일러 주십시오." "에라 이 미친 놈아, 쓸데없는 소리 그만 하고 쓸데없는 생각 다 놓아버려라."

그 길로 이 거사는 내려오면서, "쓸데없는 생각 다 놓아버려. 그 쓸데없는 생각이 무슨 생각인가?" 의심하다가 집에 와서 밥을 가락을 드는 순간,

"아!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어."

진을 하였다. 아침 저녁으로 코피가 쏟아지고 궁둥이가 물러앉고, 발치가 생겨 후두부에서 피고름이 흘러내리는 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24세에 곡성 태안사에서 한 철을 나다가 무자화두를 타파하고, 해봉·해선·보원·홍성·한암 스님을 찾아 인가를 받고, 26세에 만공 스님께 계를 받았다. 만공 스님이 어느 날 함께 길을 가다가,

"낙엽귀로에 별빛이 유독 밝구나" 하니 전강 스님은 땅 바닥에 엎드려 별을 찾는 시늉을 하여 도리어 만공 스님을 당황케 하였다. 범어사 유기담 스님이 곡차를 대접하여 마친 한 잔 들고 있는데, 대교과 강주 경명 스님이 야단을 쳤다.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화엄경> 몇 째 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화엄경> 몇 째 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화엄경> 몇 째 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고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법력·득도의 경지 남달라 덕숭문중서도 특별우대

"허허. 이 더운 날 땀 고생하고 올라왔군. 가세."

하고 모두 내려왔다.

"올라가서 보니 도인은 없고 장작 패는 노인만 있었습니."

"그분이 바로 도인인데, 도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도인을 보지.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니까!"

하고 술 파는 아줌마가 핀잔을 하였다. 그레 모든 사람들이 다 차를 뒀는데, 이 거사는 홀로 다시 티벳티백 산길을 올라갔다.

그때는 바가지에 쌀을 넣고 조리로 돌을 넣고 있었다. 이 거사는 그냥 땅 바닥에 엎드려 절하며,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하니, 스님께서 확 돌아서면서,

"별 미친줄 다 보겠네. 무슨 소리를 들어. 새 소리, 닭 소리가 그대로 부처님 말씀인데."

하였다. 이 거사가 바짝 다가서며,

하고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물러가 실성한 줄 알고 들었다.

"무엇이 바로 이것입니까?"

"내 죽은 마누라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일도 못하고 많은 사람 괴롭혔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산 사람은 산 사람인데, 6·25 때 죽은 사람을 지금까지 품고 왔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런데 그 도인스님이 죽은 여자 생각하지 말고 모든 생각을 놓아 버려라 하여, 오늘 해방이 되었네."

하고 멍실멍실 춤을 추었다. 이것이 인친 법보선원이 생기게 된 동기고, 죽은 사람 위패들을 절 안에 모시고 해탈시킨 이유이다.

전강 스님은 일찍이 부모를 잃고 동생까지 잃은 뒤 유괴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16세에 해인사 인공 스님을 만난 후 직지사 제산 스님 밑에서 8년 동안 파나는 정

답변이 없자,

"바다 밑 진흙소는 용이 되어 올라갔는데, 절뚝발이 자라는 눈 앞의 물속에서 헤매고 있으면."

하였다. 평생의 화두는 판치생모(飯齒生毛). 누구를 보아도, "판치생모, 판치생모."

하여 판치생모가 무엇인가 물으면 그대로 또 "판치생모라" 하였다.

필자와는 조계사 앞 법륜사에서 만났는데,

"나는 자네를 좋아하네. 평생 내 법문이 <초발심자경문>을 벗어나지 아니했는데, <초발심자경문>을 이렇게 세밀히 해석해 놓았으니 자네가 그대로 원효고 보조며 아운이야. 나 죽으면 이 책을 보시할 것이니 3000원만 찍어 달라고."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답변이 없자,

"바다 밑 진흙소는 용이 되어 올라갔는데, 절뚝발이 자라는 눈 앞의 물속에서 헤매고 있으면."

하였다. 평생의 화두는 판치생모(飯齒生毛). 누구를 보아도, "판치생모, 판치생모."

하여 판치생모가 무엇인가 물으면 그대로 또 "판치생모라" 하였다.

필자와는 조계사 앞 법륜사에서 만났는데,

"나는 자네를 좋아하네. 평생 내 법문이 <초발심자경문>을 벗어나지 아니했는데, <초발심자경문>을 이렇게 세밀히 해석해 놓았으니 자네가 그대로 원효고 보조며 아운이야. 나 죽으면 이 책을 보시할 것이니 3000원만 찍어 달라고."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하여 스님 열반하신 뒤 49재 때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보시 하였다.

내 몸내가 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안내

1. 한국전통따주기반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내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병 예방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열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홍, 여드름, 입술 부르트름, 비전, 백반, 목, 어깨, 가슴 통증, 협심증, 신경성, 관막증, 정신차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제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 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열보유,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과 마음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약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자신 건강관리/ 따주기 사회봉사/ 건강 복 짓기 / 생활 속 비상 따주기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1일차 (토요일 09:00 ~ 22:00)
◆ 우주의 기운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실습

나. 2일차 (일요일 09:00 ~ 13:00)
◆ 신비한 수치의 비밀 ◆ 단편에 아는 남·녀 궁합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강 ◆ 성명 분석 및 작명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4. 강좌 일정 및 장소
가.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1)일 정 : 2008. 12. 13(토) 오전 9시부터 ~ 12. 14(일) 오후 1시까지 (12월 12일 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2)수강료 : 34만원 (육왕도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체 제공)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선착순 12명)
다. 장소 : 충남청양교육장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173호를 획득한 국내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高音質 무선마이크

◆어떠한 앰프로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차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울렷합니다. 핀 마이크와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 (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괄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닝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